

두번째주 (Week 2)

이사야 5:1-7 “참 생명을 얻는 방법”

여는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또 이렇게 함께 모여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의 이해를 넘어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두고 씨름하는 저희의 모습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것은, 저희 모두가 당신의 자비가 무엇인지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세요.

또한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 그것들이 저희 안에 흐르고, 또 그것을 서로를 향해 흘려보낼 수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으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특별히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은 잘 이해되지 않아 관심을 끌거나 궁금증을 자극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나요?

이사야 5 장은 평온하고 낭만적인 시 혹은 노래(ballad)와 같이 보이는 표현들로 그 막을 엽니다. 그 시작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정원사가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노래를 해 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표준새번역) 그러나, 사랑의 노래처럼 들렸던 그 노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순간, 탄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정원사는 열심을 다해 후에 “기쁨의 정원”이라 불리우는 자신의 포도밭을 가꾸었습니다. 그의 최선에는 결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값비싼 포도나무를 심으며, 다양한 종류의 질 좋은 와인들이 생산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아는 한에서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포도들도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포도나무들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잘 자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수확을 할 시점이 다가오자, 그가 맛볼수 있었던 포도들은 오직 그 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치없는, 들포도 뿐이었습니다.

재치념친 언어유희가 담겨져 있는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지에 대한 이사야의 관점이 뚜렷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포도와 같이 여기고 계셨습니다. 7 절에서 이사야가 말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질 좋고 맛있는 포도들은 공의(righteousness)와 정의(justice)였습니다. 그러나 정의되신 살육이, 공의되신 억압받는 자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이 가득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사용된 히브리적 언어유희는 참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정의(Justice)와 살육(bloodshed), 그리고 공의(righteousness)와 울부짖음(cries)사이에는 오직 한 글자의 차이만이 존재합니다. 이 단어들은 그 모습이 서로 워낙 유사해 조심해서 읽어야 할 뿐더러, 등장할때 마다 그 차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mishpat (justice-정의)를 찾으셨으나, 그대신 발견된 것은 *mishpah* (bloodshed-살육)이었고, *zedekah* (righteousness-공의)를 찾으셨으나, 그대신 발견된 것은 *azekah* (cries-울부짖음)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언어유희들은 자주 유머를 위해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7 절 가운데 사용된 언어유희는 전혀 그런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이 언어유희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핵심메세지는,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 정도로 충분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영어표현은 “Close is not good enough”인데, 문맥에 맞게 의역했습니다- 역주) 이스라엘이라는 가지 위에 맺어진 포도가 멀리서 봤을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듯한 걸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까이 가 봤을때, 그 속의 본질이 어떠한지가 보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의의 모습은 지니고 있었으나, 그것은 오직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의였습니다. 사회의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다수의 가난한 자들의 등을 밟고 자신들의 삶을 영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굉장히 공의롭고 경건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힘써 성전을 방문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규칙적인 기도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대해선 그들은 귀머거리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언제나 쉽게 들려지는 그 울부짖음이 말입니다. 성전은 정의를 구현하고 선포하는 중심의 장이 되기는 커녕, 기득권 계층의 쉼터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벽들은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으로부터 부요한 자들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정의의 문제를 사회적, 법률적 제도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관점에서 “판사들”(Judges)은 흔히 검은 관복을 입고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관여하는 자들을 가르키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심판자들(“Judges”- 구약성경의 책 중 한군의 이름인 ‘사사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이란, 법률적 의미의 판사석에 앉아서 평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고 추구하므로 정의(Justice)를 옹호하고 수호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씨름해야 나가야 할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꼭 잡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열심과 소망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경제적, 인권적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conomic and human rights implications).

잘 알려진대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ohn15) 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더 단순히 “나는 포도나무다”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의미하고 하셨던 바가 무엇이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 장과 같은 구약의 말씀들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였어야 했으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오직 신맛이 나는 들포도만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 위에 맺혀졌습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참 포도나무이셨습니다. 그렇기에 마침내, 그 분 안에서 오랜기간에 걸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의 상황이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정의와 관련해 그들이 직면했던 수많은 생각들과 문제들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함께 토론해 볼 문제:

-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흔히 외부인 (outsiders)라는 자들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중점을 두고 있다면, 그것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 주변의 많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들 중,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부르시고 행하기 원하신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연유로 그것을 행해야 겠다고 느끼고 있나요? 무엇이 당신이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나요?
-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관련된 사안들과 관해선 “이정도면 충분해”하는 식의 태도를 지양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정의를 더욱 잘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기숙사나, 학교, 혹은 직장에서 당신이 행할 수 있는 작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이 기억하는 구체적인 불의(injustice)의 사례를 들거나, (혹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요한복음 15:1-17 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조금 덜 시거나 덜 쓰는 맛이 나는 들포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작물로 부터 최선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 정원사들은 가지를 치고, 죽고 오래된 부분을 잘라내므로, 그 작물들이 새로히 잘 자라라고 더 풍성해지는 일을 돕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포도나무의 모습이 되어간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들을 가지치고 일들을 수반합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영역에서 그러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나요?
-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갈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뿐일 때라 할지라도, 우리를 올바르게 자라게 하시는, 참포도나무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참포도나무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abide in")